

아버지의 건강행태에 따른 청소년 건강행태

양수남, 김태연, 최지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건강행태가 습관화되고 청장년기 건강의 기초가 되므로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적 요인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건강습관이 청소년의 건강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방법: 1999년 6월부터 8월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에서 351명의 학생과 그 학생의 아버지 351명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습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으며, 건강습관에는 Alameda 7, 즉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청소년그룹에서는 전체그룹, 성별, 중, 고등학교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아버지의 건강습관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습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분석은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였다(P-value < 0.05).

결과: 건강습관에 따른 아버지와 청소년의 상관성은 아버지의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남학생의 체질량 지수가 높아 비만일 확률이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규칙적인 식사율과 전체학생의 식사율에서는 아버지가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전체 학생의 규칙적인 식사를 할 확률이 높았다. 아버지의 유효한 운동에서는 중학생의 유효한 운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음주에서는 음주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음주율이 학생의 음주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음주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가 고 알코올균일 경우 여학생의 고 알코올 균이 될 확률이 높았다. 흡연이나 수면에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론: 아버지의 건강습관과 청소년의 상관성은 흡연과 수면에서 상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가족은 청소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factor이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각각 분석, 비교하는 연구와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중심단어 : 건강 습관, 아버지, 청소년